

금융상품

절세 Tip

2026년 달라진 금융세제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 연금계좌의 절세효과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Korea Council for Investor Education

저자약력



최 용 준

-
- ✓ **경 력**
- (現) 세무법인 다솔 WM센터(3본부) / 대표 세무사
 - (前)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팀장
 - 중앙일보 재산리모델링센터 자문위원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강사
 - 서울시 인생이모작센터 세테크 강사
 - SBS, TV조선, 한경TV, TBS, CBS, 채널A 인터뷰 등 다수
- ✓ **저 서**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 은퇴설계를 활용한 금융마케팅
보험세무가이드북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금융투자와 세금

금융상품과 세금

사례별 절세전략

금융상품 증여 절세전략

수익은 올리고 세금은 줄이는
**현명한 금융투자의 길을
제시 합니다**

1세기 경 중국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진 나침반은 오늘날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옳은 방향을 알려주는 지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메마른 사막을 넘는 상인들에게 나침반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길잡이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투자에도 일종의 나침반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글로벌 경제 상황 등 결코 녹록치 않은 투자 환경 속에서 수 많은 투자자들은 진정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우리 투자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올바른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투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세제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투자



절세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해 왔습니다. 이 책은 금융투자
와 관련하여 각종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절세방안
을 제시하는 한편 투자자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세전략
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수익을 올리는 투자 전략 뿐 아니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세금을 제외한 세후수익이 극대화 되어야 성공적인 투자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향후 성공투자로 나아
가는 여정에 이 책을 금융투자 절세 지침서로 적극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RIA계좌(국내시장 복귀계좌) - 서학개미, 국장 복귀하면 양도소득세 혜택	8
☉ 국민성장펀드,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11
☉ 배당소득 분리과세 - 고배당주 투자, 2026년부터 분리과세	14
☉ 투자와 절세, 노후 준비까지 일석삼조(一石三鳥) 연금계좌	16
☉ 절세 만능통장에서 필수통장으로, 국민계좌 ISA	20
☉ IS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5가지 방법	22
☉ IMA - 예금은 아쉽고 주식은 불안할 때, 중장기형 자산관리 상품	24
☉ 비과세 및 분리과세 활용 정리표	26

PART 1.

금융투자 세금

➔ 금융상품 투자, 세금이 왜 중요할까?	36
➔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37
➔ 금융소득 종합과세	41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일까?	41
2.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	43
3. 금융소득 종합과세 SMART한 대처방법	48
①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	48
② 이자·배당의 발생시점 분산	53
③ 증여신고를 통해 금융자산 분산	56
➔ 금융투자과 건강보험	58
1. 직장가입자와 건강보험	58
2. 피부양자와 건강보험료	60
3. 지역가입자와 건강보험	61

PART 2.

금융상품과 세금

➔ 펀드 투자 시 세금	64
1. 펀드는 무엇에 과세되나?	64
2. 펀드는 언제 과세되나?	66
3. 상장지수펀드(ETF) 과세방법은?	68
➔ 채권 투자 시 세금	70
1. 채권은 어떻게 과세되나?	70
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세금	72
➔ 주식 투자 시 세금	74
1. 주식투자과 세금	74
2. 배당소득세 과세방법	75
3. 증권거래세 과세방법	77

4. 주식양도소득세, 어떤 경우에 내나?	78
5. 주식양도소득세, 어떻게 내나?	85
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88
7.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92
8. 해외주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	92
➔ 파생상품 투자 시 세금	93
1. 파생상품이란?	93
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어떤 경우에 내나?	94
3.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어떻게 내나?	97
➔ 연금상품 투자 시 세금	99
1. 연금상품이란? 어떤 것들이 있나?	100
2. 공적연금, 어떻게 과세되나?	101
3. 사적연금, 어떻게 과세되나?	103
① 연금계좌 납입 시	103
② 연금계좌 운용 시	106
③ 연금계좌에서 수령 시	108

PART 3.

사례별 절세전략

➔ 서학개미, 국장 복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혜택	114
➔ 필수아이템은 바로 비과세금융상품	118
➔ 비과세금융상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백서	127
➔ 지금, 기억해야 할 분리과세 금융상품	131
➔ 一石二鳥, 투자도 하고 절세도 하는 개인투자조합 등 출자 소득공제	134
➔ 청년이라면 눈여겨보아야 할 금융상품	138
➔ 주식, 증여 후 양도 절세전략	142
➔ 전략적 손실 실현을 통한 절세전략	145
➔ 직장인, 연말정산 절세전략	147
➔ 은퇴자, 연금수령 절세전략	151
➔ 비거주자, 금융상품 투자 절세전략	155

PART 4.

금융상품 증여 절세전략

➔ 증여재산공제	160
➔ 차명계좌 증여추정과 차명거래금지	163
➔ 증여 받은 재산, 어떻게 평가되나?	165
➔ 적립식 펀드도 증여할 수 있을까?	167
➔ 증여신고, 절차와 방법	168
➔ 10년 이내 증여, 합산기준 정확하게 알기	170
➔ 증여, 취소도 할 수 있다!	170
➔ 증여세 절세전략 5계명	172

RIA계좌(국내시장 복귀계좌)

- 서학개미, 국장 복귀하면 양도소득세 혜택



최근 몇 년 사이 해외주식, 특히 미국주식 투자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미국주식 보유 금액이 2023년 680억 달러에서 2024년 1,121억 달러 2025년 1,636억 달러까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해 핵심 정책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RIA는 해외주식을 팔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계좌입니다.

RIA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RIA를 개설한 다음 해외주식을 RIA로 옮긴 후에 RIA에서 매도해야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 전반이 포함되지만 중요한 건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은 RIA에서 1년 동안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하고 국내주식 투자로 발생한 원금 초과 수익에 한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출금 가능함

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매도시점 별 공제율

매도 시점	공제율
2026.05.31.까지 매도	100%
2026.07.31.까지 매도	80%
2026.12.31.까지 매도	50%

다만, RIA에서 해외주식을 팔고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그 금액에 비례해 RIA 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이는 RIA 계좌에서 세제 혜택만 챙기고 일반계좌로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령 해외주식 매도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익률을 약 30%라고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약 330만원(세율22%) 발생합니다. 이때, RIA를 활용하면 매도 시점에 따라 최대 33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RIA는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강력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계좌입니다. 특히 빠르게 매도할수록 혜택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RIA Q&A 리스트

Q1. RIA에서 국내상장 해외ETF를 팔아도 공제되나요?

A1. 아니요. 국내상장 해외ETF는 RIA 입고대상 해외주식이 아닙니다.
RIA 입고대상 주식은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ETF에 한합니다.

Q2. 일반 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ETF를 사면 RIA공제가 차감되나요?

A2. 네. 국내상장 해외ETF를 매수하면 공제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매수시 RIA 공제금액 차감 대상

구분	비고
① 해외 주식	해외상장 ETF 포함
② 국내상장 해외ETF	
③ 해외주식형 펀드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2026년 매수 분(RIA개설 전 포함)에 적용되며, 상속 및 증여 취득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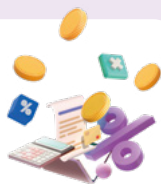
Q3. 해외주식 매수 후 당일에 팔아도 RIA공제가 차감되나요?

A3. 아니요. 해외주식 순매수액(매수 및 매도)에 기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동일한 금액 내 매수 매도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 RIA 공제에서 차감되는 비율 계산

$$\text{해외주식 순매수액 비율} = \frac{\text{일반계좌 내 해외주식 순매수액}}{\text{RIA계좌 내 해외주식 매도액}}$$

국민성장펀드, 투자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저출산·고령화와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AI·바이오·에너지전환 같은 전략산업에는 대규모·장기 자본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자금만으로는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간이 있어 투자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이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펀드는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정책적으로 일부 흡수함으로써 투자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고위험 투자보다 심리적·제도적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여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성장펀드 전용 상품(전용계좌)에 가입하셔야 하며, 해당 계좌에 납입한 자금으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금액 2억원을 한도로 투자할 수 있고 최소 3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용계좌 가입일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던 경우에는 세제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자는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펀드에서 발생한 성과가 배당 형태로 지급될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즉, 투자 초기에 “소득공제”로 세부담을 줄이고, 투자 성과가 발생했을 때는 “분리과세”로 세후수익을 높여 체감 수익률을 개선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액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 초과금액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예를 들어, 연간 3,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소득공제율은 40%이므로 공제 대상 금액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연 소득금액이 1억 원인 분이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약 460만 원 수준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후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 제도가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3년 이상 투자 유지 요건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환매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적용받았던 공제액에 대해 추징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성장펀드

기업성장펀드(일명 BDC)는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계된 공모형 펀드 성격의 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비상장 투자에 분산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3년 이상 장기투자를 전제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Q&A 리스트

Q1. 국민성장펀드는 언제 출시되나요?

A1.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오는 5월 26일 출시 예정입니다.

Q2. 국민성장펀드의 총 조성 규모는 얼마인가요?

A2.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정부 보증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금융권 및 일반 국민 공모 자금 75조원이 합쳐져 구성됩니다.

Q3. 원금이 100% 보장되나요?

A3. 아니요. 정부가 후순위로 손실을 일부 흡수하여 위험을 낮추기는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 고배당주 투자, 2026년부터 분리과세



정부는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배당소득만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고배당기업의 배당이어야 합니다.

- i)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상장기업
- ii)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

여기서 배당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얼마를 배당으로 환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하며 분리과세 대상인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

게 공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 분리과세 특례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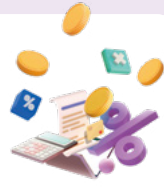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세율은 단일 세율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4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2천만원 이하	15.4%
2천만원 ~ 3억원	22%
3억원 ~ 50억원	27.5%
50억원 초과	33%

고배당기업의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의 세율은 15.4%로 기존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 하더라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 구간별로 22%, 27.5%, 33%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소득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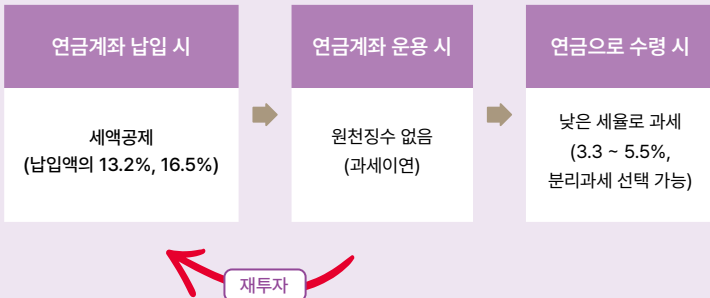
정리하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종합과세 리스크를 완화해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고배당주 장기투자 기반을 넓힘으로써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려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과 절세, 노후 준비까지 일석삼조(一石三鳥) 연금계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26년엔 초고령사회로, 2045년엔 예상 고령인구 비중이 37.4%로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체 과세되지 않아 세금도 재투자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니 노후자금을 불려나가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부담을 통해 노후자금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 얼마까지 되나요?

연금계좌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600만원까지입니다. 물론 퇴직연금계좌까지 활용해 추가 납입하면 최대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 최대금액인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600만원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원 이상 납입해야 900만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se1 납입금액 및 납입 방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변화

	연금계좌 납입액	IRP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비 고
연금계좌만 있는 경우	900만원	-	600만원	연금계좌 600만원 한도
IRP계좌만 있는 경우	-	900만원	900만원	IRP계좌 활용 시 900만원 한도
둘 다 있는 경우	700만원	200만원	800만원	연금계좌 600만원 한도
	600만원	400만원	900만원	IRP계좌 활용 시 900만원 한도

다만 ISA 만기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에 대해서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세액공제 효과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 4,500만원(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 4,500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Case2 납입금액에 따른 절세효과(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IRP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절 세 효 과	
			기준소득 이하 (16.5%)	기준소득 초과 (13.2%)
400만원	-	400만원	66만원	52.8만원
400만원	200만원	600만원	99만원	79.2만원
600만원	200만원	800만원	132만원	105.6만원
600만원	300만원	900만원	148.5만원	118.8만원

※ 기준소득 : 종합소득 4,500만원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 연금계좌의 과세이연과 재투자 효과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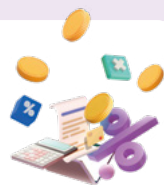
보통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가 원천징수될 뿐 아니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 경우 5월에 추가소득세를 부담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다가 추후 연금을 수령하거나 중도인출할 때 비로소 과세가 됩니다. 이처럼 매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시기를 늦춰주는 것을 ‘과세이연’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세이연 효과로 인해 세금으로 빠져나갈 자금이 연금계좌 내에서 매년 다시 재투자되면서 그 복리효과로 인해 일반계좌보다 더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 바로 ‘재투자’ 효과라고 합니다. 연금계좌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투자와 절세, 노후자금 마련까지 일석삼조의 혜택을 가진 필수 금융상품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절세 만능통장에서 필수통장으로, 국민계좌 ISA



ㄹ 하나의 계좌로 투자와 절세(비과세 및 분리과세)까지

현명한 투자자라면 ISA 계좌에 주목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예금, 펀드, ELS, 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 만능통장입니다. 각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어 만일 일부 투자손실이 생겼더라도 다른 투자수익과 상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는 뛰어난 절세 효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만기 인출 시 순이익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될 뿐 아니라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해외펀드나 ETF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에 대해 원천징수(15.4%) 되거나 종합과세(6.6 ~ 49.5%, 지방소득세 포함) 되는데 비해 ISA 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특히 투자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에도 직접투자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대로 알기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예금, 펀드, ELS, ETF,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는 통장으로 각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음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
(단,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5년간 최대 1억원 한도 내 이월적립 가능)
단, 기존의 재형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액은 한도에서 차감

가입방법은?

금융기관 중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의무가입기간은 3년

세제혜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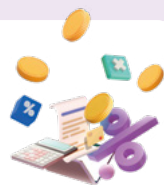
만기 해지 시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 200만원³⁾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분리과세(9.9%, 지방소득세 포함)

중도해지 또는 부분인출도 가능한가?

의무가입기간(3년) 이전에 해지하면 소득세가 추징됨(예외 있음)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부분인출도 가능(해지 불가 상품은 예외)

3)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2021. 12. 31. 이전 가입·연장분은 3,500만원) 이하 사업자·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IS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5가지 방법



ㄹ 투자수익과 함께 절세효과를 높이는 ISA 활용방안

절세효과가 뛰어난 ISA 계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ISA를 활용하는 5가지 방법, 무엇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음 1. 과세상품, 고수익 상품을 ISA에 넣어야 절세효과 UP !

해외펀드, ELS, ETF 등과 같은 금융상품들은 일반계좌(15.4%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보다 ISA계좌로 투자해야 절세효과(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부담이 크지 않은 국내 주식형 펀드나 이자율이 낮은 예금 등은 ISA에 담을 경우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음 2. 주식투자도 이제는 ISA !

종개형 ISA에서 국내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내주식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이익과 상계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3. 여유 없으면 조금, 여유 있으면 많이 넣을 수 있어

ISA는 연간 2,000만원을 납입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올해 여유가 없어서 전혀 납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ISA는 연간 납입한도에 미달될 경우 이를 이월해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불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올해 여러 이유로 ISA에 전혀 납입하지 못했더라도 내년으로 이월해 그만큼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자금 사정과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ISA의 큰 장점입니다.

☺ 4.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효과가 3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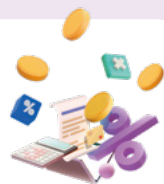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지만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러한 한도 없이 얼마든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 ~ 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니 ISA 계좌에 둘 때보다 세 부담은 더욱 더 낮아지게 됩니다.

☺ 5. 해지나 만기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재가입 가능

만일 ISA 계좌를 중도해지 했거나 만기가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재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ISA 계좌를 다시 개설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계좌 가입기간이 일단 길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개설해 두는 것이 유리한 셈입니다.

IMA

- 예금은 아쉽고 주식은 불안할 때, 종장기형 자산관리 상품



자산관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은 예금입니다. 예금은 구조가 단순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 투자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이 있다 보니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도 함께 따릅니다. 예금과 주식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최근 관심을 받는 상품이 바로 IMA, 종합투자계좌입니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받아 기업대출, 회사채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고르거나 매매시점을 판단하지 않고 증권사의 전문적인 운용을 통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다 운용의 폭은 넓히고 직접 투자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중간형 자산관리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IMA는 예금처럼 정해진 이자를 주는 상품은 아닙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구조이며, 만기와 수익 구조도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기준수익률까지의 수익은 고객에게 우선 배분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비율에 따라 증권사와 고객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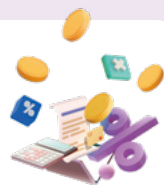
IMA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고 만기 시에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자금보다는 일정 기간 여유있게 맡길 수 있는 증장기 자금 운용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정리하면 IMA는 여유자금을 예금에만 두기에는 아쉽지만, 그렇다고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있는 자산에 직접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운 경우에 고려해볼 만한 상품입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IMA-CMA-예금 비교

구분	IMA	CMA	보통 예금
가입기관	증권사	증권사	은행
원금 보장	○ (증권사 지급 약정)	△ (상품별 상이)	○ (예금자보호법)
금리 또는 목표 수익률	약 4~8%	약 2~3%	약 0.1%
만기	보통 2년 이상	만기 없음	만기 없음
입출금 자유도	만기 전 인출 시 원금 미보장 가능성	수시 입출금 가능	수시 입출금 가능

비과세 및 분리과세 활용 정리표



1

비과세 및 분리과세상품 활용

상 품	내 용
제한 없는 비과세 상품	①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주식, 펀드, 랩) ② K-OTC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중소·중견기업) ③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취득기한 : 2028. 12. 31.) ④ 브라질국채 ⑤ 장기저축성보험(요건 충족 시)
인적/ 금액제한 비과세 상품	① 비과세종합저축(가입기한 : 2028. 12. 31.) ② 조합출자금(적용기한 : 2028. 12. 31. / 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③ 조합예탁금(적용기한 : 2028. 12. 31. / 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기한 : 2028. 12. 31.) ⑥ 청년미래적금(가입기한 : 2028. 12. 31.) ⑦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기한 : 2026. 12. 31.) ⑧ 청년도약계좌(가입기한 : 2025. 12. 31.)
분리과세 상품	① 개인투자용 국채 ② 조합출자금(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③ 조합예탁금(총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④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입기한 : 2026. 12. 31.) ⑤ 공모인프라펀드(가입기한 : 2028. 12. 31.) ⑥ 뉴딜인프라펀드(가입기한 : 2022. 12. 31.) ⑦ 장기채권(2013. 01. 01. 이후 발행분부터 3년 이상 보유 시 분리과세 33% 신청가능 / 2018. 01. 01. 이후 발행분부터 분리과세 신청 불가능) ⑧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가입기한 : 2026. 12. 31.) ⑨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가입기한 : 2024. 12. 31.)

상 품	내 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	①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적용기한 : 2028. 12. 31.) ③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입기한 : 2025. 12. 31.) ④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가입기한 : 2028. 12. 31.)

2

비과세상품 내용

상 품	내 용
제한 없는 비과세 상품	①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주식, 펀드, 랩) - 국내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비과세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 과세 ② 국내 비상장주식 매매차익(K-OTC) - K-OTC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매매한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 과세 ③ 국내 비상장주식 매매차익(벤처기업 등 출자) -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 후 3년 이내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 설립시 또는 설립 후 7년 내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 - 3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 매매차익 비과세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 과세 - 2028.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④ 브라질국채 - 한·브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제외 - 브라질의 조세정책에 따라 브라질에서 비과세 ⑤ 장기저축성 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납입식 저축성보험 (2017. 04. 01. 이후 가입분부터는 월 150만원 한도) - 거치식 종신형 저축성보험 - 거치식 상속형 저축성보험(인당 2억원 이하, 2017. 04 .01. 이후 가입분부터는 인당 1억원 한도)

상 품	내 용														
인적/ 금액제한 비과세 상품	① 비과세종합저축(가입기한 : 2028. 12. 31.) - 대상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1인당 5,000만원 한도														
	② 조합출자금 및 조합예탁금														
	<table><tr><th>구분</th><th>조합출자금</th><th>조합예탁금</th></tr><tr><td>대상</td><td>조합원(거주자)</td><td>조합원(거주자) 준조합원(19세 이상 거주자)</td></tr><tr><td>한도</td><td>1인당 2,000만원</td><td>1인당 3,000만원</td></tr><tr><td rowspan="2">요건</td><td colspan="2">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출자(예탁)한 경우</td></tr><tr><td colspan="2">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td></tr></table>	구분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대상	조합원(거주자)	조합원(거주자) 준조합원(19세 이상 거주자)	한도	1인당 2,000만원	1인당 3,000만원	요건	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출자(예탁)한 경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구분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대상	조합원(거주자)	조합원(거주자) 준조합원(19세 이상 거주자)												
	한도	1인당 2,000만원	1인당 3,000만원												
	요건	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출자(예탁)한 경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초과시 분리과세(5.5~9.9%)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가입자격 : 가입 또는 연장시 19세 이상 거주자(15세 이상근로소득자 포함). 단,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혜택 :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여 금융소득 200만원 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단, 일정한 농어민·사업자·근로자 ⁴⁾ 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 계약기간 : 3년(중도 해지시 세액 추징, 단, 원금 내 중도 인출 허용)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납입한도 이월 적립 가능)															
④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개정: 가입기한 2028. 12. 31.)															
- 대상 : 무주택 세대주인 ⁵⁾ 청년(19 ~ 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인정), 연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의무가입기간 2년															
- 비과세적용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우대금리적용															
-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가입기간 전체기준)															

4) 농어민(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근로자(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5)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상 품	내 용
인적/ 금액제한 비과세 상품	⑤ 청년미래적금(가입기한 : 2028. 12. 31.) - 대상 : 청년(19~34세, 병역기간 별도인정) - 연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3년 만기적금,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 - 기여금 : 일반형 6%, 우대형 12%(소득, 가구 기준)⁶⁾ - 이자소득 비과세
	⑥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기한 : 2026. 12. 31.) -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납입한도 : 2024. 12. 31 이전 납입 : 월 40만원 2025. 01. 01 이후 납입 : 월 55만원 - 군복무기간(최대 24개월) 비과세 적용 - 단, 만기 전역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
	⑦ 청년도약계좌(가입기한 : 2025. 12. 31.) - 대상 : 청년(만19 ~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별도 인정) - 단,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매월 70만원 한도 내 적금(연 840만원 한도), 만기 3년 -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 만기 수령 시 이자소득 비과세(특별중도해지 요건 시 비과세 가능)

6) 일반형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or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취업자 or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3

분리과세상품 내용

상 품	내 용
분리과세 상품	① 개인투자용 국채 - 만기 : 5년, 10년, 20년 - 투자한도 : 최대 2억원 - 만기 보유시 매입액 2억원까지 15.4% 분리과세 혜택
	②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 5천만원 한도(3년 이상), 9.9% 분리과세(농특세 별도) - 가입기한 : 2026. 12. 31.까지
	③ 공모인프라펀드 - 투자액 1억원 이하 15.4%(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로 가입 - 계약기간 1년 이상일 것 - 적용기한 : 2028. 12. 31.
	④ 뉴딜인프라펀드 - 투자액 2억원 이하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1명당 1개의 뉴딜인프라펀드 전용계좌로 가입 - 계약기간 1년 이상일 것(특례적용기간 3년) - 적용기한 : 2022. 12. 31.
	⑤ 장기채권 -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의 이자소득 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2013. 1. 1. 이후 발행채권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이자지급 받기 전 분리과세 신청 필수 - 2018. 1. 1. 이후 발행채권부터는 분리과세 폐지
	⑥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 3억원 한도(10년 이상), 9.9% 분리과세(농특세 별도) - 가입기한 : 2026. 12. 31.까지
	⑦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 - 3천만원 한도(1년이상 3년이내) 15.4% 분리과세 - 투자형태 : 집합투자기구(사모 포함),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 - 가입기한 : 2024. 12. 31.까지
	⑧ 조합출자금 및 조합예탁금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 가입한도 : 2,000만원(예탁 : 3000만원)

4

소득공제상품 / 세액공제상품

상 품	내 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	①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누구나 세액공제 가능 - 계약기간 : 최소 5년 이상(이연퇴직소득은 적용배제)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이내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2020년이후 납입분부터)⁷⁾ - 세제혜택 : 연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2020년이후 납입분부터)⁷⁾ -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900만원 - 연금수령 시 3.3% ~ 5.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연간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수령시 종합과세. 단, 분리과세 (16.5%) 선택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분리과세 -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분리과세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2028. 12. 31.까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벤처기업 등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기구 ㉤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 - 출자·투자일로부터 2년 내 1회 소득공제 선택) - 출자·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단, ㉢, ㉤의 경우 100%(3,000만원 이하), 70%(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30%(5,000만원 초과)

7) 추가납입방법 : 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내 연금계좌로 납입

상 품	내 용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	③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대상 : 청년(19 ~ 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 계약기간 최소 3년 ~ 최대 5년, 2025. 12. 31. 까지 가입 -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납입액(한도 600만원)의 40% 소득공제 단, 가입기간 내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배제, 3년 내 해지 시 감면세액 추정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 전환가입(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시 추정 제외 ④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코스닥벤처펀드) - 3년 이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가입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 납입액 10% 소득공제(투자일로부터 2년 내 1회 소득 공제 선택) - 가입기한 : 2028. 12. 31.

5

가입기한 종료된 절세금융상품

2015. 12. 31. 일몰이 도래한 소장펀드, 2017. 12. 31. 폐지된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이제 더 이상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도 2024. 12. 31. 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내 이미 가입한 사람은 만기까지는 세제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장기적립식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 (하이일드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현재가입 가능여부	불가 (가입기한 : 2015. 12. 31.)	불가 (가입기한 : 2017. 12. 31.)	불가 (가입기한 : 2024. 12. 31.)	불가 (가입기한 : 2025. 12. 31.)
가입 자격	가입 당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거주자	거주자	청년(19~34세) 거주자 가입 당시 총급여 5천 이하
가입한도	연 600만원	1인당 3,000만원	1인당 3,000만원	연 600만원
세제 혜택	근로소득에서 납입 금액의 40% 공제가능	해외주식 매매·평가 차익·환차익 비과세	15.4% 분리과세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기가입자 혜택유지	가능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가능 (계좌 개설일 기준 10년까지)	가능 (1년 이상 3년 이하)	가능 (3년~5년)

[참고] 세제혜택이 종료된 금융상품

선박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하이일드펀드는 현재에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더 이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17. 12. 31. 세제혜택이 종료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선박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되며 종합과세 합산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타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